



[보험 飛上2020전략] 메리츠화재 "고객만이 답이다" 05



Economy

코스피 2118.88 (-0.13)	코스닥 646.85 (+4.37)
금리 (연이자율) 1.29 (-0.01)	환율 (원/달러) 1195.00 (+3.20) (3일)

# '코로나 쇼크' 현대차 조업중단 위기

주요부품 재고 6일 소진  
中 공장은 9일까지 스톱  
국내외 대체품 찾아 분주

현대기아차그룹이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후폭풍으로 '조업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자동차의 주요 부품 가운데 하나인 와이어링 하니스의 재고가 오는 6일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자동차 조립 초기 공정에 설치하는 부품으로, 차량 바닥에 모세혈관처럼 깔

뒤 다른 부품을 엮을 수 있다. 와이어링 하니스는 차량 조립에 앞서 설치해야 하는 부품으로, 전량 중국 엔타이에서 한국 부품업체인 경신·유라·THN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수입해온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중국 정부가 공장 가동을

9일까지 멈추면서 후속물량 공급이 완전히 끊긴 상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주말 펠리세이드 라인 특근을 취소했고, 기아차도 기아차도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에서 생산량 감축을 실시하면서 재고를 조정해왔다.

그럼에도 최근 인기 차종이 크게 늘어난 탓에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를 조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절을 대비해 쌓아뒀던 약 1주일분 물량도 거의 다 소진하면서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이에 따라 대체품을 찾아나서는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찾아보고,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동남아 공급처도 확인 중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항공 운송까지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 中 증시 강타, 7.7% 폭락

상하이종합지수 2746.61  
낙폭 4년여 만에 가장 커  
3199종목 하한가 거래정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중국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다. 경제영향권인 아시아 증시도 동반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기관의 매수로 제한적인 영향을 받았다.

3일 중국 대표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전거래일인 지난달 23일보다 7.71% (229.92) 급락한 2746.61로 장을 마감했다. 낙폭은 2015년 8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컸다. 3700여개 중 증시 전체 상장 종목 가운데 절대다수인 3199개가 가격제한폭인 10%까지 떨어진 채 거래가 정

지됐다. 중국 위안화 가치도 시장 불안감을 감안해 달러 대비 절하되고 시됐다.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달러·위안 거래 기준환율을 전장대비 0.54% 오른 6.9249위안에 고시했다.

중국 증시의 폭락은 예견된 사태다. 중국 증시가 쉬던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기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싱가포르에 상장돼 있는 중국 선물 지수도 고점 대비 12.5% 가량 빠지며 하락을 예고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의 심각한 소비 침체를 불러올 것을 우려한다. (2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 이후 국내 증시 주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가 사흘 연속 하락세로 마감한 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3포인트(0.01%) 내린 2,118.88, 코스닥지수는 4.37포인트(0.68%) 오른 646.85로 종료했다. /연합뉴스

## 미디어의 새 길 메트로와 함께!

2002년 월드컵의 합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가치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를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매체 다변화 시대를 적극 주도하기 위해 온라인과 지면의 동시발행이란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기사, 인공지능(AI) 도입 등 개방형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트로는 독자와 함께 하며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18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수습기자 채용 안내 -**

- 모집부문: 취재(뉴메트로 공채 6기 수습기자)
- 모집내역: ①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취재 역량평가 ▲3차: 면접(블라인드 방식)
- ② 모집인원: 0명
- ③ 응시자격: 대학 이상 졸업자(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0년 2월 4일(화) ~ 2020년 2월 19일(수)
  -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월 19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월 21일(금) 본지 웹 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metro

# 일주일일이 고비... 접촉자 모두 자가격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

### 새 기준 반영, 대응지침 시행

정부가 앞으로 일주일 가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고비로 판단,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3·8·L3·L4·L7면>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격리하는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유증상자에게 대한 진단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후베이성 방문 여부나 건강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외국인에겐 강제 퇴거 명령도 내려진다.

3일 신종 코로나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전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중국의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정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새로운 격리기준이 반영된 신종코로나 감염증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오는 4일부터는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이 자가격리되는 새로운 지침이 시행된다.

이제까지는 밀접접촉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만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지만 그 구분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와 유증상자에 2m 이내 접촉이 이루어진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한 경우 그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하게 된다.

격리자에 대한 밀착관리도 이루어진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자가격리가 필요한 접촉자의 정보를 지자체의 소속기관 소관부서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도 강

화된다. 그동안은 신종 코로나의 검사 대상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폐렴 증세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으나, 4일 부터는 중국 이외의 지역 입국자라 하더라도 신종코로나 유사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개발한 '실시간 PCR 검사법'이 사용된다. 검사 결과가 6시간 안에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유전자 증폭 장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민간의료기관이나 전문검사기관에도 검사장비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기업은행, 지주사 전환 속도내나

윤종원 은행장  
자회사와 시너지 강조



가을 60년을 위해 IBK를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만들고, 은행과 자회사의 시너지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BK기업은행의 오랜 숙원인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종원 행장(사진)이 자회사와의 시너지를 강조하면서 금융그룹으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윤 행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던 기존 행장과 달리 정부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어 지주회사 전환 속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행장의 선임으로 기업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윤 행장은 지난달 29일 취임식에서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시대 속 बैं킹은 필요하지만 बैं크는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다

현재 기업은행은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 등 총 8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 本社 인사

◇편집국 ▲ 금융·증권부문 대기자(국장) 이정희